
 인천광역시		보도자료		 인천의꿈* 대한민국의미래	
		배포일자	2022년 12월 18일(일) 총 4매		
담당 부서	도시브랜드 담당관실	담당자	• 브랜드전략팀장 이상숙 ☎440-3081 • 담당자 최준호 ☎440-3083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복 시장, 인천만의 도시 가치로 제2의 도약 선포

- 2022 인천세계도시브랜드포럼 마무리 ... 2,500여 명의 시민 참여 -
- 세계적 석학 켄트라스, 브랜딩 전문가 이재석, 박상훈 등 참여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15일 시청 중앙홀에서 집단지성을 통한 창조적인 발상과 도시브랜드의 미래 방향을 찾기 위해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 ‘2022 인천세계도시브랜드포럼’이 개최됐다고 밝혔다.

포럼은 350명의 시민이 사전 등록한 가운데 온오프라인으로 개최됐으며,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에 송출됐다. 2천500여 명의 많은 시민이 실시간으로 시청해 도시브랜드에 관한 많은 관심을 확인했다.

‘제물포 르네상스, 인천의 길이 되다’라는 주제로 전문가 및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진행된 이번 포럼은 “세계 초일류도시라는 새로운 차원의 미래도시 구현이 도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공감대 형성과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해법이 제시되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개회사에서 “인천은 개항의 역사를 바탕으로 다양성을 품고 발전한 포용의 도시이며, 창조 DNA를 가진 도시”라며

“그 창조의 역사로 오늘의 인천을 만들어 왔고, 이제 제2의 도약을 할 시점에 서 있다” 라고 강조했다.

첫 번째 세션 기조 강연자로 나선 켄트라슨* MIT 미디어랩 대표는 ‘도시의 전환과 미래도시’ 라는 주제로 미래도시를 설계하기 위한 10가지의 전략을 사례를 통해 소개했고, 이러한 전략이 인천의 도시경쟁력 제고에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켄트라슨 : 도시계획 분야 세계적 석학

켄트라슨 MIT 미디어랩 대표는 유정복 인천시장과의 대담에서는 “변화하는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빅데이터 및 지역, 시민의 필요와 가치에 맞게 조정하면서 발전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고 강조했다.

특별 세션에서는 광고 천재로 유명한 이제석 이제석광고연구소 대표의 ‘버려진 공간, 도시의 얼굴로 변신하다’ 라는 주제로, 육교, 빌딩 옥상, 향만, 폐공장 등 도시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장소 브랜딩 사례 및 도심 재창조 방안을 발표했다.

김승혜, 남창희씨와 김보섭 인천지역 사진작가, 이정민 (주)우리아이들플러스 이사, 인하대 랄리삭 학생(불가리아 외국인 유학생), 이세웅 인천시 도시브랜드담당관이 참석한 두 번째 세션은 인천 도시와 도시 경쟁력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재미있게 소통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제물포 르네상스를 활용한 인천 도시경쟁력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김경배 인하대 교수는 ‘제물포의 변화와 혁신, 인천의 미래를 본다’ 에 대해, 박창호 세한대 교수는 ‘세계초일류도시와 하버시티’ , 신일기 인천가톨릭대 교수는 ‘제물포르네상스

는 플랫폼이다’ 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김경미 아나운서의 사회로 장동민 청운대 교수, 박상훈 (주)스톤브랜드커뮤니케이션즈 대표, 류윤기 인천시 제물포르네상스 기획단장과 함께 ‘제물포 르네상스를 통한 인천의 글로벌 역량 강화’ 라는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인천시는 이번 포럼을 딱딱하고 지루한 발표 형식의 포럼을 넘어 영상을 활용해 교양프로그램 형식으로 진행했다. 인천시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icncityhall>)에서는 포럼 전체 영상을 다시 보기 서비스로 제공한다.

이세웅 시 도시브랜드담당관은 “이번 포럼이 도시의 새로운 가치를 발굴하고, 인천 도시 브랜딩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무형의 도시 가치를 활용한 도시 브랜딩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그 외 사진은 인천시 홈페이지

‘인천시 인터넷방송’(<http://tv.incheon.go.kr/>) ‘포토인천’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붙임 1>



<붙임 2>

